

# 美 국채·금값도 ‘흔들’... 트럼프 폭탄관세에 안전자산 실종

10년물 미국채 금리 0.11%p 올라  
中 보복성 국채매각 가능성 제기  
국제금값 2984.16달러로 떨어져  
‘경기침체=금 투자’ 투자자 낭패

“트럼프 때문에 ‘투자 대피처’가 없다. 오죽하면 ‘현금도 종목’이라는 말이 나오겠나.”

요즘같이 세계 증시가 불안할때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각광받던 채권과 금이 최근 ‘빛’을 잃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 올린 상호관세에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채권 금리는 오르고 있고, 온스당 3000달러를 웃돌던 국제 금값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믿을 구석’이 사라진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시장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이날 전장 대비 0.11%포인트 오른 4.3%를 기록했다. 국채 금리 상승은 국채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Chat GPT로 생성한 ‘금(gold)과 미국 국채 수익 하락에 놀란 투자자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지난 2일 한때 4.2%를 넘겼던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4일 한때 3.85%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2거래일 연속 올랐다. 2거래일간 상승 폭은 0.3%포인트(마감 기준)에 가깝다.

미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이번 국채 매도세의 주요 원인으로 헤지펀드의

‘베이스 트레이드(basistrade)’ 중단을 꼽았다. 베이스 트레이드는 국채와 선물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 전략으로, 중단 이후 국채가 대거 매도된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국채 매각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 채권 수익률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의 상호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하자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하며 맞섰고, 이에 주식 시장이 급락하면서 안전자산으로 국채 수요가 늘었지만 이날은 국채 금리가 오르며 가격이 하락했다.

금도 ‘금빛’을 잃었다.

3000달러를 찍던 국제 금값은 8일(현지시간) 온스당 2984.16달러로 밀려났다.

금 가격이 연동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 각종 금융 상품 가격도 최근 약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골드 선물 ETF’는 4월들어 3.28% 손실을 기록했고, 가격 흐름을 2배로 반영하는 레버리지 상품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골드 선물 레버리지 ETF’는 가격이 6.60%나 떨어졌다. 최근 국내 증시 폭락을 접하고 ‘경기 침체=금(안전 자산) 투자’의 공식을 적용해 금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낭패를 보고 있는 것이다.

금은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 불안으로 각종 금융 상품이 추락할 때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빛을 발한다. 그 자체가 희소성이 있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기 때문이다. 또 금은 현물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고물가 시기에 ‘인플레이션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친 요즘, 금이 뜻밖에도 힘을 못 쓰고 있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속에 강세를 보이던 귀금속 섹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로 일시적 조정을 겪고 있다”며 “경기 침체 우려 속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 연구원은 “실질금리 상승 시 금과 은 가격은 약세를 보이며, 연준의 긴축 기조 전환 시 가격 하락이 두드러진다”며 “다만, 실질금리 상승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단기 현금 수요에 기인할 경우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IMA 가동... 원금보장형 실적배당 상품 임박

(종합투자계좌)

금융위, 증권업 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미래에셋 vs 한국투자 ‘1호 주자’ 귀추  
증권사 ‘한국형 투자은행’ 본격 추진

금융당국이 종합투자계좌(IMA) 제도를 본격 가동하며 증권사의 원금보장형 실적배당 상품 출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증권업계는 IMA 1호 주자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증권업의 질적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IMA 제도 구체화와 함께, 발행어음과 IMA로 조달한 자금의 25%를 중소·중견기업 등에 투자하는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 지속가능한 성장의 열쇠는 자본시장에 있으며 증권업이 그 중심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증권사가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을 통해 밸류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증권사는 은행처럼 고객의 자금을 수신하고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한국형 투자은행(BB)’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게 된다. 특히 IMA는 증권사가 고객 자금을 통합해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으로, 투자자에게는 원금을 보장하면서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주목받는 대목이다.

금융위는 IMA 제도가 실제 운용되지 못한 이유를 ‘불명확한 제도 설계’로 보고, 원금지급 의무, 만기구조, 자산운용 규제 등 세부 제도를 대폭 보완했다. 향후 IMA 상품은 폐쇄형·추가형 구조로, 증권사가 만기 시 원금을 지급하고 성과에 따라 초과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출시된다. 예컨대, 3~7년 만기 중수익형 상품은 5.5% 이상의 목표수

익률을 설정하고, 매자니·Pre-IPO 등 고위험 투자 자산에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IMA 영업이 가능한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을 추진한다. 현재 요건을 충족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두 곳이다. 지난해 말 자기자본을 7조원대로 끌어올린 삼성증권도 IMA 진출을 염두에 두고 사업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1호 IMA’ 타이틀을 두고 미래에셋과 한투 중 누가 먼저 자격을 얻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에 대해서는 발행어음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은 올해 하반기 초대형 IB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지 못했던 삼성증권 역시 이번 기회에 발행어음 영업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허정윤 기자

## 미래에셋 박현주, 15년째 배당금전액 기부

올해 기부액 16억, 누적액 331억  
“이 땅의 젊은이들 위해 사용할 것”

미래에셋그룹은 박현주 회장(사진)이 2024년도 미래에셋자산운용 배당금을 전액 기부한다고 9일 밝혔다. 15년 연속 기부로, 누적 기부액은 331억원이다.

박 회장은 2010년부터 미래에셋에서 받은 배당금을 기부하고 있다. 올해 기부하는 배당금은 약 16억원으로, 15년간 누적 기부액은 331억원에 달한다. 박 회장은 지난 2008년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2010년부터 배당금 전액을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기부금은 미래에셋그룹 내 공익법인을 통해 향후 인재육성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과 미래에셋희망재단은 설립 이래 국내외 장학사업, 청소년 비전프로젝트, 글로벌 문화체험단 등



다양한 장학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말 기준 양재단의 총 누적 사회 공헌사업비는 1069억 원을 기록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앞으로도 각 계열사와 공익법인 이 함께 인재 육성 및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 회장은 2007년 발간한 자서전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에서 말한 “최고의 부자보다 최고의 기부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 기부 문화 확산과 나눔 실천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 기술 발전과 청년 인재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에셋은 고객과 사회로부터 얻은 것을 돌려드리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KSD나눔재단, 아동·청소년 문화관람 지원

초록우산에 후원금 3300만원 전달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부산지역 문화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지원을 위한 후원금 33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KSD나눔재단은 부산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배경아동 지원기관, 아동복지협회 등 아동복지기관을

통해 문화예술 체험에서 소외된 아동·청소년 800명을 선정해 미술전시, 뮤지컬, 콘서트, 지역축제 등 문화예술행사 관람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순호 KSD나눔재단 이사장은 “이번 후원 사업을 통해 문화소외계층 아동·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성보경 KSD나눔재단 사무국장(오른쪽)과 양승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 팀장이 부산지역 문화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 삼성SDI, 유상증자 발행가액 14만6200원

모집총액 1조7282억 규모 공시

삼성SDI는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을 주당 14만6200원, 모집총액 1조728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1차 발행가액은 지난달 14일 이사회 결의 때 정한 예정 발행가액인 16만9200원 대비 주가 하락을 반영해 13.59% 낮아졌다.

모집 총액도 당초 예정가액으로 잡은 2조원에서 2700억여원 줄었다.

최종 확정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3거래일 전인 5월 16일에 결정된다. 이어 21일부터 구주주 청약과 일반공모 청약을 거쳐 6월 13일에 신주를 상장할 예정이다.

삼성SDI는 이번에 정한 1차 발행가액과 다음달 16일 결정할 2차 발행가액 중 더 낮은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유상증자의 주식 수는 1182만1000주, 기존 주식 수 대비 증자 비율은 16.8%다. 1차 발행가액 기준 자금 사용 목적은 타법인증권취득자금 1조3741억원, 시설자금 3541억원, 발행비용 73억원 등이다.

삼성SDI는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자금을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합작법인 투자, 유럽 헝가리 공장 생산능력 확대, 국내 전고체 배터리 라인 시설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